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 시좌의 변경, 1936년 정인섭의 유럽여행체험에 대하여*

차혜영**

1. 문제제기
2. 1930년대 중반의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과 여행자 정체성의 변경
 - 1) 1936년 블록 경제하 유럽의 국경이동-세관, 교통, 환전, 관광비 지니스 체험
 - 2) 개인여행자의 정체성-소비자/국민
3. 자본주의 도시문화의 세계적 동시성과 서구표상정치학의 변동
 - 1) 유럽 거대도시 표상의 세계적 동시성
 - 2) 구매자(=동양 여행자)와 관광상품(서구) 표상의 지정학
4. 결론 및 남는 문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정인섭의 일제말기 서구 유럽 여행기를 대상으로, 1930년대 중반 한국인의 서구표상에 나타난 단절과 변화, 그 변화가 세계적 차원에 접속되는 차원과, 식민지 조선-식민 지배국 일본의 관계에 접속되는 지점, 그것이 여행자 개인의 정체성과 '서구표상'이라는 당대 공通知와 접속되는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 본고는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 (2013-000-0000-0630)을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임.

** 한양대학교

정인섭의 여행기-1936년 여행체험 및 1940년대 기록-는, 대공황 이후 유럽이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로 선회하면서 국가간 물류, 화폐, 인적 이동에 있어서 이전 시기에 비해 명백한 폐쇄주의로 전환한 시기라는 역사적 맥락, 그가 연희전문 교수의 신분으로 '세계언어학자대회'라는 국제학술회의 참여하는 신분과 여행목적,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편의 제공, 와세다 출신 영문학자로서의 유창한 영어능력이 결합되어 있는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있다. 또한 이런 여행의 사회 역사적 맥락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인여행자 정체성과 그것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세계체제의 변화된 환경을 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그의 경험은 서구를 여행하는 동양인이 식민/피식민, 동양/서구인이라는 프레임에서, 자본주의 세계질서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소비자) 프레임으로의 변환을 보여준다. 호텔, YMCA 등 자본 및 비국가적 종교적 네트워크, 쿡,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여행비즈니스 네트워크에의 접속과 그 접속 기본요건으로서의 언어적 가능성(영어 구사능력)이 만들어준, '세계를 여행하는 개인 여행자' 정체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 속의 자격을 갖는 개인'여행자는, 일본 총영사관을 통한 자국민 관리, 일본은행 해외지점, 환전 안내, 자국민의 민간교류에서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 국가의 그늘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다. 이런 여행자 정체성(소비자/국민) 속에서 상호적으로 규정되면서 새로이 부상한 서구라는 대상의 이미지는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자, 잡다한 저질의 퇴폐적 오락문화가 넘치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표상되어 있다.

정인섭의 여행기는, 1920년대까지 유지된 네이션(민족)의 감각과 결별하면서, 1936년 시점, 대공황기 블록경제하의 유럽에서, 거대한 분열의 경쟁시장으로, 개인을 시장에 홀로 내던져진 구매자(소비자)로 표상하고, 그 전장=시장에서 개체를 보호해줄 최소한의 국가(非민족)라는 그늘막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국민의 이중정체성이 만든 새로운 서구 표상은 '상품=서구'이지만, 궁극적으로 취득(소비=장악)될 수 없는 서구에 대해 매혹과 공포의 분열이 착종된 냉소주의적 무의식을 보여준다.

주제어: 대공황, 블록경제, 보호무역주의, 해외조선인 네트워크, 해외 일본인네트워크, 여행비즈니스서비스 시스템, 국가간 자본주의의 시스템, 여행자 정체성, 시장에 던져진 개인, 자본주의 도시문화의 세계적 동시성, 네이션, 소비자/국민, 관광상품-서구, 방어적 냉소주의,

1. 문제제기

이 글은 정인섭의 일제말기 서구 유럽 여행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정인섭¹⁾은 1936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언어학자대회'에 참가한 후 유럽 지역을 여행했고(1936.8월~1936.9월, 대략 1~2개월), 귀국 후 기행문을 『조광』, 『삼천리』, 『동아일보』, 『매일신보』, 『사해공론』에 게재했다.²⁾ 정인섭

-
- 1) 정인섭은 1905년 생으로 1926년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입학 후, 1929년 귀국해 연희전문 교수를 지낸 바 있다. 1936년 8월 세계언어학자 대회는 연희전문 교수로 재직중 이루어진 것으로 이 당시 그는 한글학회(1930), 조선민속학회(1932), 조선음성학회(1935)에 가입해 있었고, 해외문학파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언어학자대회는 그의 이런 조선음성학회와 해외문학파 활동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인섭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 연구, 해외문학파 및 번역 활동의 의미에 대해 연구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 2) 정인섭의 유럽 여행기 텍스트(1937-1942)는 아래와 같다.
 - 「구라파 여행기-애급의 여수」(『사해공론』, 1937년 1월) -이집트
 - 「애란문단방문기」(『삼천리』, 1938년, 3회) -아일랜드
 - 「영국문단순례」(『조광』, 1938년 5월, 미완 1회) -영국
 - 「백림기」(『조광』, 1939년 8월) -독일
 - 「파리의 추억」(『조광』, 1940년, 3월, 4월, 5월 -3회) -프랑스
 - 「정말점묘 상중하3회」(『동아일보』, 1940년 4월 13일-4월 16일) -덴마크
 - 「와이마르 기행-괴테의 집을 찾아서」(『문장』, 1940년 5월) -독일
 - 「정말시찰기」(『조광』, 1940년, 7월, 8월) -덴마크
 - 「서서의 자연과 인문」(『조광』, 1940년 9월) -스위스
 - 「이태리 방문기」(『조광』, 1940년 11월) -이태리
 - 「라마의 인상」(1940년 12월) -로마
 - 「이태리기행, 폼페이와 감상」(『조광』, 1941년 1월) -이태리
 - 「영국문화의 위기」(『매일신보』, 1942년) -영국
 - 「세계의 문인기념상, 인생은 짜르고 예술은 길다」(『삼천리』, 1940년) -유럽 전체

의 유럽여행기는 이런 20-30년대 일반적인 세계여행기 및 유럽일주기³⁾와는 그 내용 및 사회역사적 맥락상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차이는 1936년 8월~9월이라는 여행 시점 및 1939-42년이라는 개재 시점과 관계된다. 그의 유럽여행 체험은 중일전쟁 이전(1936년)에 이루어졌고, 그의 기록은 조선 및 일본에서는 중일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전시체제 시기, 유럽에서는 독일의 폴란드 공격을 기점으로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차례로 공격·정복해가던 2차대전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1939년, 1940년, 1941년 기간 동안에 독일이 차례로 공격해가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사실은 1920-30년대에 한국인의 여행기에, '구주문명제국'으로 표상된 '서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서구에 대한 20-30년대 20여 년간, 아니 한국이 근대시기에 접어든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된 서구에 대한 일반표상이 일제말 전시체제기 및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치며, '영미귀축(英美鬼畜)'이라는 표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급작스러운 서구표상의 변경 이면에, 이 시기 한국인의 '서구표상'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정인섭의 여행기록을 독해하고자 한다. 30년대 중반 한국인의 서구표상에 나타난 단절과 변화, 그 변화가 세계적 차원에 접속되는 차원과, 식민지 조선-식민지배국 일본의 관계에 접속되는 지점, 또 여행자 개인의 정체성과 '서구표상'이라는 당대 공通知와 접속되는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여행이 이루어지고 여행기가 씌어진 1936년-1942년이라는 시간은, 대공황의 후유증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 및 결과로 국제적인 분열을 맞으면서 이전 시기의 세계질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노르웨이와 덴마크」(『매일신보』, 1942년 2월 24일-3월 2일)

3) 식민지 시대 유럽 및 세계일주 여행기는 1920년대 이래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알려져 온 바이다. 당시에 세계일주를 하고 돌아온 지식인의 여행담(나혜석, 허헌, 박인덕 등)을 게재하기도 하고, 유학지에서 보내는 기행문(박승철, 계정식 외 다수)을 실기도 하고,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보고들은 바를 현지에서 보내기도 하고(이관용), 서구 유학을 떠나는 지식인들의 감상과 가는 길의 소회를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연재 중계하기도 했다.(오천석, 도유호, 한홍수, 김선기 등) 이렇게 미디어로 호출되어 연재되고, 이를 통해 당대에 공유된 서구에 대한 표상은 문명제국, 구주 열국의 이미지일 것이다.

맞이한 시기이다.

1930년대 중반 이전 시기는, 일본과 식민지 조선 내부적 시야에서 볼 때, 1919년 이후, 3.1운동과 문화 통치로의 전환 및 그에 따른 공론장·미디어 시대의 개막, 그리고 대정기 문화 민주주의적 사상의 자장 속에서 식민지 담론장이 존재한 시기이다.⁴⁾ 동시에 국제적 시야에서 본다면, 1차대전 전후체제, 즉 베르사이유 강화조약과 워싱턴 군축회의, 그리고 국제연맹의 창설로 대표되는 전후평화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평화 체제가 전승국 중심의 질서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가 표방한 '평화'와 민족자결, 소위 '정의와 인도라는 개조의 시대'라는 기치 아래, 신흥국·약소민족의 독립과 부흥(아일랜드, 인도, 폴란드.), 구제국을 교체하며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 강국으로 부흥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안 체제로서의 소련이 국제질서 속에 자리잡은⁵⁾ 시대이다. 그리고 전후 부흥경기 및 1차대전이 역설적으로 열어놓은 미디어 통신 테크놀로지 환경 속에서 세계적 동시성을 갖고 펼쳐나간 '에로·그로·년센스', 미국적 재즈문화, 상품소비자본주의 시대 등으로 인표되는 자본주의적 대중문화의 세계적 동시성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⁶⁾ 일본의 경우 만주사변 이전까지 외교 정책상 '국제협조주의 외교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때이다.

1930년대는 이러한 1차대전 전후질서가 1929년의 대공황을 통해 벽에 부딪히면서, 이러한 이전의 20년대 세계문화와는 다른 방향의 질서를 노정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흔히 1929년 대공황을 뉴딜정책 등 미국에 한정시키지만, 이와 유사한 공황대응 즉 국가주도적 계획경제정책 및 이에 대한 국민대중의 호응과 일정정도의 성공은, 사실은 무솔리니와 히틀러 등 파시스트 국가들이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결정적 조건이기도 했다. 요컨대 대공황 이후 국가주도 보호주

4) 이태훈, 「1910-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 지형」, 『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2012; 윤덕영,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체인식과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5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5) 김영숙, 「만주사변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소불가침조약 체결문제」, 『일본역사연구』26, 일본사학회, 2007 외

6) 미리엄 실버버그, 강진석 외 역, 『에로틱 그로테스크 년센스-근대일본의 대중문화』, 현실문화, 2014 참조

의 경제로 선회하면서, 영국 프랑스 등 구제국이 자국 보호무역주의 및 파운드 블록 및 프랑블록 등 블록경제로 전환하는 30년대 중반의 시기, 그리고 블록화 할 식민지권역을 갖지 못한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이 파시스트 체제를 통한 경제 회복과 국내적 인기와 동시에 국제적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국외 확장 불가능성에 부딪히는 시기가 3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재군비를 선언한 것이 1932년, 일본 역시 서구 열강의 만주국 승인불가를 계기로 국제연맹을 탈퇴한 것이 1933년이다. 1936년부터 가동되어 1941년 3국군사동맹으로 이어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후발 자본주의 파시즘 연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들이 2차대전의 전쟁 주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인섭의 여행기는 이 변화의 유럽을 36년 현재적 시점에서 체험했다는 것, 그것을 2차대전 시기에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 근대인이 세계일주 혹은 유럽을 여행하고 쓴 여행기를 시기별 심상지리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천추범』류의 문명시찰기로, 대한제국시기 관료의 신분으로 서구열강을 시찰한 기록이 그것이다. 둘째, 1920년대, 30년대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주로 20년대 1차대전후 베르사이유조약 및 워싱턴 군축회의로 상징되는 전후 세계체제하, 식민지 근대 문화정치 시대에 여행을 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 『삼천리』 등 대중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구주문명제국'으로 공유된 서구표상을 제공하는 기행문들이다. 근대 한국인의 서구표상의 거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세계여행의 역사적 조건 및 표상·미디어의 조건(기행문 게재와 함께 실시간 뉴스 유통을 통한 세계 기사의 공유 시스템)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셋째, 30년대 중반 세계여행 체험 후

7) 찰스 페인스틴·페터 테만·지아니 토니올로, 양동휴 외 역, 『대공황 전후의 세계경제』, 동서문화사, 2008.; 임경석, 「세계대공황기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 『역사와현실』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이준식, 세계대공황기 민족해방운동 연구의 의의와 과제, 『역사와현실』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8) 도널드 서순, 오숙은 외 역, 『유럽문화사3, 4』, 뿌리와이파리, 2008; 피터 게이, 조한욱 역, 『바이마르 문화』, 탐구당, 1983; 폴 콜리어 외, 강만수 역, 『제2차 세계대전-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플래닛미디어, 2008.

기록한 것으로 세계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 보호무역주의로 정치·경제적으로 분열되는 유럽을 여행하고 기록을 남긴 경우가 드물게 존재한다. 넷째, 2차대전기, 식민지 조선의 전시체제가 서구의 몰락을 전유하는 일부 여행기들이 존재한다.

이중 정인섭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중층적으로 보여준다. 세 번째의 30년대 중반 분열의 유럽을 체험하고 여행기로 쓴 저자들은 정인섭 외에도 도유호, 이순탁, 한홍수, 김재원 등 몇몇 지식인이 있다. 이들 중 일제말의 적극적인 전쟁협력과 해방이후 대한민국을 선택한 지식인으로는 정인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⁹⁾ 이 점에서 그의 유럽여행기는 대공황과 파시즘 시기의 30년대 중반, 2차대전기의 유럽 및 그것과 동시적으로 진행된 중일전쟁하의 조선, 이후 해방과 냉전이라는 불연속적 단절과 지속을 통해, 한국근대지식인이 '서구'를 전유하는 지속성과 단절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매우 희소하고 유의미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1930년대 중반의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과 여행자 정체성의 변경

앞의 주3)의 목록에서 보다시피 그의 유럽기행문은, 1938년 영국 및 아일랜드 방문기 이후, 1939년 「백림기」를 기점으로, 주로 1940년 내내, 1941년까지 1년간 『조광』지를 중심으로 거의 매달 연재하고 있다. 이 여행기는 한편으로는 여행지에서 본 것, 겪은 것, 만난 사람과의 대화, 감상과 느낌이라는 일반적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면, 그의 여행기는 기묘한 분열을 보여준다. 즉 경험하고 기록한 사실(본 것, 만난 사람, 교통 편, 방문지 등등)은 당대(1930년대 중반 유럽)의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상은 2차대전이 한창 진행 중인 1940년대의 감상, 그 감상을 경유한 유럽지정학적 심상지리가 교직되어 있는 것이다. 단층, 불연속에서 전지는 30년대 중반의 대공황의 여파가 만들어낸 유럽의 분열이라는 변화, 후자는 40년대 2차대전이 개시되고, 전범국 독일에 동화된 시선,

9) 이들 중 김재원은 일제말 대일협력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유호와 한홍수(동유럽 유학생출신)는 해방기에 북쪽을 택했다.

즉 '일본 · 독일 · 이탈리아' 연맹체의 시각으로 유럽을 전유하는 것이다. 이 두 모습 모두 한국근대 이후 20여년의 서구 심상지리로부터 이탈되는 지점과 방향을 보여주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층, 불연속 중에서, 본고는 30년대 중반 유럽에 대한 공통표상의 변모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⁰⁾

그의 기행문을 종합해 1936년 약 2개월의 여정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 → 미기록 여로(추정: 소련, 폴란드 경유) → 베를린(8/21 도착) → 덴마크(8/25 도착) → 영국(9/2 런던 도착) -- 아일랜드(9/7. 도착) -- [스코틀랜드(월터 스코트, 스티븐슨 기념관)-- 영국:호반도시의 워즈워드 묘지-섹스피어생가(9/12)] → 파리(9/12—9/17) → 스위스(9/17) → 이태리(9/18도착) → 아테네(9/21) → 이집트(9/24) → 귀환예정(아덴만, 스에즈 운하)¹¹⁾

이상의 1936년경 유럽 여행 당시, 보고 겪고 기록한 것 중 개별 국가별 차이라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공통되는 서술대상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국가간 국경 이동의 상세한 절차와 경험, 둘째 해당 국가(도시)에 들어가서 경험한 당대 도시대중문화 특히 오락적 소비문화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경험이 그것이다.¹²⁾ 이

-
- 10) 후자 즉 2차대전기 히틀러에 의한 유럽공격에 대한 파시스트 연대의 심상지리의 차원에서 그를 달리하여 살피고자 한다.
 - 11) 특히 이 과정에서 여정과 날짜 상에는 분명히 있었던 여행인데, 당대 일제말기에는 발표되지 않은 지역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문제적인 것은 이 유럽여행기의 대부분이 1960년 『세계문학 산견』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다. 해방 후 출간된 책에서는 일제시대 이들 매체(『조광』,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등) 여행기에 대한 삭제, 수정, 변명, 기억의 착오(자료 부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여정과 날짜 상에는 존재했지만 일제말기에 발표되지 않았던 여행지역이 첨가되어 수록되기도 한다.(고딕표시) 식민지 시대 여행기가 해방기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경우, 해방기 정치적 상황, 저자의 남·북한 체제선택 등에 따라 상당한 수정과 첨가 삭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인섭의 경우만은 아니다. 해방이후 여행기 출판의 맥락에 대해서는 그를 달리하여 살피고자 한다.
 - 12) 이외에 문학기행이라는 자의식하에 각 나라에서 문인 기념상, 문인생가 등 문학유적지 방문을 기록하고 있다.

두 가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등 유럽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것이고, 철저히 개인적인 목적, 관찰, 체험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1) 1936년 블록 경제하 유럽의 국경이동-세관, 교통, 환전, 관광비지니스 체험

1920-30년대에 걸쳐 씌어진 유럽 여행기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 '나라들 간의 경계' 자체에 대해서 상세히 쓰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상당수 여행기는 '조선을 떠나는' 기대와 설렘, 흥분이 다수이다. 그중 일부는 미국으로 갈 때('태평양 건너서' 등의 제목)와, 유럽으로 갈 때('인도양 가는 길' 등의 제목)의 선박항로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부는 평양 안동 만주 소련지역을 통과해서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한반도 북쪽 철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세 노선-태평양, 인도양, 한반도 북쪽 철도-노선 중에서 유럽으로의 입국은 후자의 두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후자의 두 노선 대부분은 조선을 출발할 때의 흥분, 일본 요코하마 등에서 선박 승선할 때의 설렘 등에서 멈추거나, 소련 국경을 통과할 때의 이채로움을 서술한 것이 다수이고, 유럽 내 이동에 있어서 국가간 국경통과의 경험을 기술한 사례는 정인섭이 거의 유일하다.¹³⁾ 또 다른 부류의 여행기들은, 떠나는 과정, 국경진입, 국경이동 보다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본 곳 위주를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계에 대한 의식'보다 '도착지 장소의 새로움'에 주목해서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승철, 이정섭, 허헌 등

13) 미국으로 입국할 때 '천사도-로스앤젤레스 입국관리소'에서 겪은 가혹한 경험을 기록한 주요한, 박인덕 등의 유학생들의 기록, 『우라키』 소재 경험담 등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증가해가는 아시아계에 대한 반이민 정서 및 이에 따른 배일이민법 등에 따라 1920년대 미국입국관리소 경험은 치욕적일 정도로 엄격했다. 소련에 입국, 통과할 때의 경험을 기록한 사례(조희염, 김준연, 나혜석)도 몇몇 있는 편이다. 소련 입국·국경 통과는 1925년 일로협정(혹은 일소기본조약)을 통해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이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경쟁적으로 소련 취재를 진행한 이후, 신문 잡지를 통해 언급된다. 1925년 이관용, 김준연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로서 만주에서 소련 입국비자를 기다리던 경험을 「이슬아슬한 이야기」(김준연, 『신동아』, 1935.6월, 7월, 8월, 9월)에서 회고한다.

대부분의 여행기들이 이에 해당된다.

요컨대 유럽 여행기는 상당수 있지만, 소련, 미국의 국경진입·통과의 절차·시스템 체험과 같은 유럽으로의 입국, 유럽 내 국경 이동에 있어서의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 편이다. 왜 그럴까?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유럽 내 국경이동 절차, 즉 국민국가간 장벽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느슨했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정석해의 회고록¹⁴⁾ 및 최종고¹⁵⁾의 저술에 의하면 1차대전 이후 전간기 독일 프랑스 국경 이동의 느슨함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 나온다. 이관용(동아일보의 독일 여행기 연재), 박승철(개벽)의 여행기에서도 독일, 이탈리아 등 여행 시 철도 이동에서 국경이동의 '용이함'을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그것을 기록할 가치로 여기지 않는 기행문 프레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경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 위주의 선택, 국경간 이동성 보다 국가 내부의 문화제도를 선택하는 가치관단 때문일 수 있다. 셋째, 중국 여권으로 유럽에 들어갔던 1919년 직후사정과 연관된다.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인 대표를 참석시키기 위한 '임시정부 구미위원회'와 연계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해 기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¹⁶⁾ 당시 공식적으로 총독부 여권을 통해서 구미로 떠나는 이들의 여행기¹⁷⁾가 미디어에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세 경우와는 정반대의 맥락에서 동양인, 식민자 정체성이라는 차원을 추정할 수 있다. 국경통과 경험 자체의 권위적 배제의 시스템과 그것에 대한 대응능력(언어) 부재로 인해 여행자 스스로 글쓰기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이다. '국경을 통과한다는 것'의 언어, 정체성, 권력적 위계관계 때문에(대부분 유학생/무직자 신분이고 보증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기억과 기록에서의 열등한 위치성 때문에 고국에 보내는 기행문에서 기

14) 3.1운동 후 중국여권으로 유럽으로 망명,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학했다.(정석해, 『서산 정석해, 그 인간과 사상』, 연세대출판부, 1989.)

15) 최종고, 『한독교섭사』, 홍성신서, 1983.

16) 여운홍의 회고(「나의 파리시대」, 『삼천리』, 1932.1월), 정석해, 최종고의 위의 저서, 독립운동사 자료관의 해외독립운동 부분 참조.

17) 오천석, 홍난파 등은 이런 여행권 취득, 신체검사 등 출국관련 절차에 대해 조마조마한 기다림을 기록한 바 있다. 오천석, 「태평양 건너는 길」, 『동아일보』, 홍난파, 「나의 渡美記-洋上비곡」, 『중앙』(1936.7월, 8월)

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행한 현지 유학생 안내자 도움으로, 국경통과의 제반 절차를 모르고도 여행했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정인섭은 이에 반해 유럽으로의 입국 및 유럽 내 국경이동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이는 한국 근대 여행기 전체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연결의 국경- 교통 및 자본주의적 관광 비즈니스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세계여행은 국경들여가기 →여권조사 →세관통과→ 환전→ 숙소(관광플랜짜기) → 여행목적실현(관광, 방문, 회의 참석 등) → 다음 목적지로의 이동을 위한 교통편 예약(여행사 통해, 기선, 기차 등)→ 남은 돈 환전 및 쇼핑 → 이동, 다음 국경진입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경이란 국가의 경계를 표시하는 외부와의 단절의 장벽이자, 동시에 바깥과 연결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통로이다. 물류 및 집단의 이동은 물론, 개인여행자가 국경에 진입하거나 나갈 때도 역시, 진입을 막는 장벽이자, 바깥과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로 기능한다. 이 통로를 거쳐야만, 다른 곳에서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 국경은 낯선 곳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창구이다. 정인섭이 보여주는 유럽 내 이동경험은 바로 이점, 즉 개인이 국가들간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세계체제에 접속함으로써 겪는 진입의 장벽이자 동시에 연결·개방·허가·보증의 네트워크라는 국경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그의 여행의 노선은 '베를린-코펜하겐-영국, 아일랜드, 런던-파리-스위스-이탈리아-이집트'로 이어진 노선이었다. 그는 한반도의 북쪽을 통과해 소련, 폴란드 국경을 지나 독일로 들어가는 철도노선을 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은 베를린으로부터 시작된다.

8월 25일 백림의 스테텐 역을 떠나 정말을 향해...이튿날 새벽에 기선은 어느 정말 항에 도착하였다는데 깨끗하고 어여쁜 新造의 열차가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객조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면 차간에는 외국학자들이 보여지는데 아마 수도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세계연

어학자대회에 출석하는 손님인 것이 분명하다. 몇 시간 후에 기차는 다시 부두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는 열차를 그대로 실어가는 커다란 기선이 기다리고 있어 여객들은 다시 기차에서 내려서 선실로 바꾸어 탈 필요도 없이 그대로 차간에 앉아있으니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차는 그대로 기선갑판에 있는 철로로 술술 들어갔다. 나는 평생 처음 보는 光榮에 접하고 호기심이 나서 열차에서 기선갑판에 내려서 이모조모를 구경하였다.(「정말시찰기」, 『조광』, 1940. 7, 156쪽.)¹⁸⁾

북해에 면한 북유럽의 국가들의 이동에서, 베를린에서 덴마크로 들어갈 때, 덴마크에서 영국으로 나올 때, 모두 기차와 기선, 역과 항구와 같은 국경을 통해 여권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그가 목격하는 것은, 동서양을 이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물리적 교통체험이다. 예컨대 기차를 타고 나라를 떠나 그 기차에 탄 채로 여권조사를 받는 경험은 물론, 위의 인용문처럼 자신이 탄 기차가 북해를 건너는 기선 안으로 들어가고 기선 안의 선로를 통해 다른 나라의 항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교통의 물리적 경험을 광영이라고 신기해했다. 그러나 이는 신기한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은 나라를 건너 드는 국경 이동에서의 여권조사(여객조사)라는 국가간 장벽이,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라는 자본주의적 이동성을 축으로 운용되는 자본주의 세계 시스템, 그것이 열어놓는 개방과 연결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A>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여행사'에 가서 이태리 여행의 차표를 샀다. 밀라노 경유로 라마로 가고 거기서 나폴리 경유로 폼페이로 다시 海港 브란디시까지 연락차표를 샀다. 그런데 마침 그때 라마법 왕청에서는 대전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거기 참관하는 여행은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그 회장에 가서 반드시 조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태리서는 할인금액을 다시 받는다고 한다....이 할인을 샀다.(「서서의 자연과 인문」, 『조광』, 1940.9, 146쪽.)

18) 정인섭 여행기는 대부분 『조광』에 연재된 것이다. 이하 인용시 본문에 표기함.

B>9월19일 나는 라마의 레르미니 역에 내렸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시가지도를 사서 구경할 순서를 정하고는 먼저 여행사에서 가서 브란디시항에서 희랍으로 가는 汽船의 출발시일을 알아서 표를 사두어야할 필요가 있기에.....나는 땀을 흘려가면서 모르는 길을 물어서 겨우 찾아낸 '쿱여행사'에서조금 쉬 후에 자동차를 하나 불러서 라마구경을 시작했다. (-「이태리 방문기」, 『조광』1940.11, 146쪽.)

위의 글은 도착지에서 관광, 방문, 회의 참석(정인섭이 이 모두)등 '여행목적'을 실현 후 다시 다음 나라로 이동할 때의 국경 경험이다. A>에서 정인섭은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차표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사에서 '밀라노-로마-나폴리-브란디시'행 표를 예매한다. B>에서는 이탈리아 남단 브란디시 항에서 그리스, 이집트 행 선박을 예매하러 토마스 쿱여행사를 찾아가 예매하는 장면이다. 여행은, 이들 각 도시에서 머물러 시내 관광을 한 후 갈아타는 식으로 진행된다.(로마 시내에서는 유적을 관광하고, 폼페이에서는 베수비오 화산을 관광하는 식이다) 이때 스위스에서 예매할 때, 로마 경유지에서는 로마관광 프로그램(로마 교황청 전람회) 할인 티켓과 기차표 할인이 연계되어 있다. 도착지에서는 때때로 시내버스 관광투어가 연결되기도 한다.(베를린에서는 30여명이 버스로 베를린 카바레를 구경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위스와 이태리, 독일이라는 국경(단절의 장벽)이 교통편, 다음 국가에서의 관광 프로그램 할인, 연계관광 편의 시스템 등 '쿱'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비국가적 여행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접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가 여행네트워크 자체를 상업화한 비즈니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이런 연결의 네트워크 자체가 결국은 상품 판매와 구매를 향해 집중되어있는 모습은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다.

나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사무원 소개로 바로 가차이 잇는 몽블랑 부두 50번지의 '하스 네뷰'회사에서 가서 30프랑의 회중시계와 20프랑의 회중시계 두 개를 매입했다. 물론 나는 저런 것을 선물로 살 돈의 여유도 없거니와 회중시계도 여러 개 갖고 오면 관세가 문제이니까 일제 과분한 것은 아니하기도 했다. 그런데 특히 느낀 것

은 그 점주가 묻는 말이었다(중략).....시계집이 펍 많은데 여기 오시
게 된 건(중략) 건 호텔사무원이 소개합디다(중략)아마 호텔
사람들과 상점 사이로 서로 연락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그들은 이렇
게까지 그들의 사업정책을 구명한다. 그 사무원은 나중에 이 상점에
서 무슨 콤미쉬를 먹었는지 모른다.-서서의 자연과 인문(「서서의 자
연과 인문」, 『조광』, 1940.9, 146쪽.)

위의 글은, 스위스에서 회중시계를 쇼핑한 일화이다. 시계상점에서 외국인 관광
객 정인섭에게 자기네 상점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호텔사무원의 소개로 왔는
지를 꼼꼼히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스위스의 시계상품
을 중심으로, 호텔, 국내쇼핑, 외국인 쇼핑, 여행사가 연결되고 그에 따른 커미션
이 제공되는 상태를 보여준다. 이처럼 정인섭이 보여준 국가간 이동은, 자본주
의 여행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국내와 해외를 망라하는 판매망 속에
접속되면서, 매끄럽게 연결되는 균질화된 시장 시스템에 접속되는 체험이다.¹⁹⁾

(2) 단절의 국경- 세관, 환전

이와 같이 자본주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럽 내 국경이동 체험은
연결, 개방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국경이 갖는 허가, 자유, 연
결, 편의성의 경험은, 동시에 그 장벽의 통과 자격과 요건을 심문하는 규칙에의
복종을 전제한다. 그의 여행에서 독일을 기점으로 이탈리아, 영국 등으로의 국
경이동은 진입의 장벽으로 경험된다.

8월21일 새벽 파란국경에서 독일국경으로 들어간다. 또 국경이구
나! 원 국경만 되면 여행객은 두통이다. 기차를 바꾸어타는 것이라
던지 세관검사라던지 지폐교환이라던지 또는 갑자기 언어가 달라
지는 까닭에 여간 불편이 아니다. 내가 탄 차 간에는 파란청년 두
사람이 독일 라이프치히까지 상업으로 간다는데 독일 세관에게 불

19) 나혜석, 박인덕, 도유호 등도 이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경험을 간헐
적으로 언급한다.

러가서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집을 받게되었다고 쿨쿨거리면서 불쾌하다는 말을 연발한다. 올치 이것만 보아도 독파관계를 알겠구나! 하고는 조금 있노라니까 여행권을 거두어 간다. 조금 있으니 세관리가 와서 독일의 특별한 외국화폐규칙을 보여준다. 즉 독일 돈은 외국에 갖고나갈 수 없으며 또 외국돈을 함부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기입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발서 첫인상이 규율이 언한 곳 같아 보였다. (『백림기』, 『조광』 1939.8, 100쪽.)

위의 글은 폴란드 국경을 통과해 독일 국경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다. 폴란드 청년이 돈 벌러 독일로 들어갈 때의 몸수색 경험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국경이 사람·노동(력)·화폐의 이동에 대해 배타적 장벽으로 기능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국경이 연결이 아닌 '장벽'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전쟁이나 테러 등 정치적 이유, 혹은 노동력(인구) 이동이나 물류, 화폐이동을 통제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인섭이 경험한, 1936년 유럽에서 국경이 단절로 기능 전환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더 컸다. 대공황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서 블록화된 서구 유럽 각국의 세관 통과 경험을 세관과 환전 경험에서, 정인섭은 상세히 기록한다.

A> 기선은 영국 동남의 항구 '하워치'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리자 부두를 지나 세관소를 지나게 된다. 역원들의 조사는 가장 엄중하였다. 만로국경(만주·소련)과 로파(소련·폴란드)국경을 지날 때도 상당히 어려웠으나 거기서는 다른 정치적 분위기가 농후했지만 여기서는 그 성질이 전연 다르게 순연히 경제적 의미에서 특히 상품에 대해서 극도의 정밀한 조사를 행한다. 대단히 까다롭다. 가방이란 가방은 속속들이 다 들추어보고 외국물로서 상품화될 염려가 있는 것은 철저히 심사하고 정가의 半價를 소위 수입보증금으로 몰수하게 한다. 거기는 개인의 사정이란 있을 수 없다. 자기나라 상품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영국사람들 만큼 심하게 구는 국민도 없는 모양같았다. (중략)....보증금이란 것은 만약 3개월 이내로 다시

영국을 떠날 때 그 물건을 도로 持去한다면 그 금액은 返濟가 되고 不然이면 그것이 관세로 인정되어 沒收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일자 이내로 元세관소로 미리 통지하되 일자가 앞서 4일 만에 예고 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즉 3개월 이내에 그 물건을 도로 지거持去 하는데 4일전까지 미리 통기만해두면 영국을 떠나는 최종항구의 세 관소에서 역원들이 그 금액을 반제해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 조건에 不습하면 沒收되는 것인데 영국내에서 賣去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니 환언하면 國產獎勵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카메라와 망원경에 4배를 지불했다.(『영국문단순례』, 『조광』, 1938.5, 121쪽.)

B> 9월 12일 밤에 룬돈을 떠나 밤중에 파리행 기선에 몸을 실었다. 배에 막 오르기 전 미리 편지로 연락해 두었던 세관에서 약간의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정말서 복해를 건너 영국에 드러울 때 사진기와 쌍안경 휴대를 위해서 지불해두었던 보증금인데 3개월 이내에 영국을 떠나게 됨으로 규약대로 미리 떠나는 해항의 세관에 통지해두었던 관계로 그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이다.(『파리의추억』 1회, 『조광』, 1940.3, 82쪽.)

두 인용문은 영국으로 들어갈 때(A)와 영국에서 파리로 나올 때(B) 세관 통과 경험이다. 세관은 물류이동을 차단하는 국가간 장벽이자 동시에 그 물류이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독점적 통로이고 규칙이다. 정인섭이 세관에서의 짐 검사를 통한 입국절차 -입국시 카메라, 망원경, 4배의 보증금, 출국시 반환 받을 때의 세관 신고 예약 절차 등등 -는, 인용문A>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나 복잡하다. 이것은 타국으로부터 들어온 외제품이 허가 없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 시기 보호무역주의하의 폐쇄성 때문이다. 이 과정을 안내자 없이 개인으로서 고스란히 통과한 경험을 정인섭은, 『조광』에서는 물론, 1942년 매일신보에서도, 해방기 단행본에서도 반복적으로 회고한다.

물류이동의 장벽(통로)인 세관을 통과한 이후, 기다리는 것은 화폐이동에 대한 국가간 장벽(=이동규칙)으로서의 환전 경험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모든 나라가 각국의 화폐를 갖고 있던 시기, 이 화폐 이동 규칙에 직면한 경험을 살펴보자.

A> 독일의 등록화폐

나는 이제부터 백림을 여러 가지로 구경하여야 된다. 그러자면 돈을 넉넉히 바꾸어 노아야 하는데 처음 백림에 내릴 때 정거장 兩替所(환전소)에서는 조금 준비해두었드렸는데 일본인 회관서 이야기들은 소위 등록화폐가 유리한 것을 생각하고, 다시 '운터 덴 린덴'가에 있는 횡빈정금은행지점으로 찾아갔다. 외국여행객에만 허하는 특별위체인만큼 나는 잘 모르나 거기서 남하는 대로 얼마간을 준비하였다.

말이 낮으니 말이지 이 등록화폐는 남들이 말하기를 원래 구주대전 후 독일이 列國의 전채(戰債)를 다 갚지 못함으로해서 부득이 절충된 편법의 하나라는데 그 요지는 이리하다. 즉 외국서 독화를 산다면 보통 국내서 양체하는 것보담 약배를 주는데, 외국인이 독일에 입국하면 이 등록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일일인에게 최대 백막식 한꺼번에 십일분씩을 살 수있지마는 이 돈은 독일 군내에서 소비할 것이지, 절대로 외국에 밀수출하기를 불허하는 것이며 여행권에다 소유권을 기입해두는 까닭에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백림기」, 앞의 책, 103쪽)

B> 블록경제하의 환전, 자국화폐유출 금지

특별할인율로 외국여행객에게 판 이태리 돈은 그 대신으로(싼할인율의 댓가로) 이태리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내가 가진 이태리 돈을 영국돈 '파운드'로나 미국돈 '달러'로나 불란서 돈 '프랑'으로나 독일 돈 '마르크'로나 환산해달라해도 응해주지 아니하였다. 뻔연히 안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노력해 본 것은 나의 실책이었거니와 나중에 인도양을 건너올 때 箱根丸속에서 다른 일본여행객에게 들었지마는 내가 당한 곤란은...(중략)...즉 여행사나 은행 같은 데서는 국가 법률이 그대로 시행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 교섭이란 것이 될 수 없지마는 보통 상인이라던지 또는 라마있는 일본거류민들은 내가 가진 이태리 돈을 좀 험한 값으로 얼마든지 산다는 것이다.([이태리방문기], 앞의 책, 146쪽.)

C> 남은돈 환전과 쇼핑, 다음(국가)도시로의 이동

(이태리를 떠나 그리스와 아집트로 가는 배를 타기위해 브란디시항으로 향할 때, 폼페이에서) 출국 전에 이태리돈을 바꾸어야할 것임으로 다시 시가로 돌아다니며 노력을 해보았다. 그러나 여행사나 은행이나 양채점포에서나 영미불독 어느 화폐로도 사지 않는다. 할수없이 나는 그와 같이 어떤 상점에 가서 중절모도 사고 적갈색 단화도 사고 가방도 샀다. 그리고 3백리라는 외국지출을 허락한다기에 남겨두었다가 아테네행 선표를 샀다. 12시 경이 되어서 소관해상경찰서에 가서 여행권에 조인을 받고 또 해관에서 짐검사를 마치고 기선 '카리타아'호에 몸을 실었다....기선은 지금 알바니아 해안을 거쳐 희랍으로 향하고 있다.([폼페이의 인상], 『조광』, 1941.1, 223쪽.)

위의 인용문 셋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환전에 얽힌 에피소드들이다. 인용문 A>는 독일의 등록화폐에 대한 것으로, 1차대전 패전이후 미국 및 전승국들로부터 들어온 전쟁채권, 천문학적 인플레이, 지폐의 과잉 발행으로 넘쳐나는 독일 마르크에 대한 소비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정인섭은 일본 요코하마은행 베를린 지점에서, 이 등록화폐제도를 통해 특별히 이득을 보고 환전을 한다. 인용문 B>와 C>의 이탈리아 역시, 자국화폐유출을 금지하는 외환통제 속에서, 외국인 정인섭이 겪은 고통을 적고 있다. 둘 다 환전 할인율에 차이를 둔 것으로, 모두 외국인이 국가 내에 돈을 들여오기는 쉽게, 나가기는 어렵게 한 것들이다. 국내에서 돈을 쓰고 나가도록 하고, 자국화폐는 유출을 금하고 있는 상태이다. 베를린에서 덴마크로 갈 때 독일을 떠나는 절차에 있어서도 “독일 국경을 떠날 때는 (감독관원들에게 소지품과 여행권조사를 당한 후) 특히 화폐에 대해서 엄중히 취체를 한다기에 등록 마르크는 한푼도 남기지 않게 다 쓰고”²⁰⁾ 나와야

할 만큼, 외환 통제는 혹독했다고 할 수 있다.

1929년 이후 30년 중반 대공황 후유증 탈피를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시기는 영국이 영연방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히틀러, 무솔리니 집권기, 독일 이탈리아가 실업자 구제와 국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주도적, 폐쇄적 경제정책을 펼치던 시기이다.²¹⁾ 이 시기에 유럽을 여행한 이순탁(1933년 여행, 1934년 여행기 출간)이 그런 세계경제체제의 폐쇄적·자국이기주의적 전환을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우려스럽게 전망하고, 런던 경제회의 참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전쟁으로 치달을 위험에 대해 암울하게 전망한 바 있다.²²⁾ 비슷한 시기(1936년) 유럽을 여행한 정인섭은, 이런 시스템하에서 각국간의 폐쇄적 경쟁과 화폐 이동의 장벽들을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다. 1933년 무렵의 이순탁이나 1936년 무렵의 정인섭이 경험했던 유럽은 경제적으로 가장 폐쇄적이었던 유럽이라고 할 수 있다.

찰스 페인스틴 등은 이 시기 세계 경제를, 1933년 금본위제 폐기 후 세계 각국이 끝없이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무역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대공황으로부터의 깊은 고난과 느린 회복의 시간'으로 본다. 이 시기 프랑스, 영국, 미국은 협조적인 국제체를 형성하기 위한 삼국협정을 체결하고, 쿼터와 외환통제조치를 완화했으며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도 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 틀 외부에 있었다고 한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자국경제를 국가통제, 군국주의, 폐쇄경제의 방향으로 몰고 갔으며, 외환통제, 관세, 특혜적 쌍무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고 언급한다.²³⁾ 위의 인용문은, 이 당시, 1930년대 중반 대공황의 후유증에서 유럽의 후발 자본주의국 독일과 이탈리아가 취한 외환통제조치를 겪는 외국인 정인섭의 경험이다.

사실상, 세계여행시 국경에서의 여권 조사와 세관에서의 짐 검사는 이 세계

20) 「정말시찰기」, 『조광』, 1940, 7.

21) 찰스 페인스틴·페터 테민·지아니 토니올로, 양동휴 외 역, 『대공황 전후의 세계경제』, 동서문화사, 2008.

22) 이순탁, 『최근세계일주기』,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23) 찰스 페인스틴·페터 테민·지아니 토니올로, 위의 책, 22쪽.

지구상에, 자격을 갖는 국가들이 형식적으로 평등한 연결체로 이루어진 사슬(국가간 시스템)을 통과하는 경험이다. 이 사슬(국가간 시스템)위의 국가들은, 오랜 제국 영국, 프랑스도 있지만, 폴란드, 소련, 아일랜드 등도 있다. 국경, 세관은 '그때 그 시점에서 자격을 갖는 국가로서' 창구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인섭이 통과한 나라들만 해도 폴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등 1차대전 이후 신흥독립국들이 있다. 1920년대 여행자들-김창세, 박승철, 이정섭, 허헌, 나혜석 등-은 이런 나라들을 볼 때의 '남다른 감정'-같은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상기한 바 있다. 1920년대 여행자들의 국경이동 경험 이, 1차대전 이후 베르사유 강화조약 및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 생긴 '나라들'에 대한 심상지리, 그 나라들에 대한 자기(집단적 우리=조선 민족)와의 유비적 투사에 기초한 네이션적(민족적)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1936년의 여행자 정인섭은 자본과 물류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자국경제를 보호하려는,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체제하의 유럽을, 정치적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하의 유럽을 중심으로 경험하고 기록한다. 그러면서, 그 국경통과, 세관조사, 환전의 절차 등을 자기 카메라와 망원경 보증금 이야기, 값싸게 환전한 이탈리아 화폐의 불통, 독일 등록화폐의 이득 등 지극히 개인적 손익 중심으로 경험하고 묘사한다. 정인섭이 쓰는 국경 이동 체험에서, 나라들은 새로 생기거나 회복되거나 찾는(찾았거나, 찾을 것으로 희망되는 민족주의적 상상력)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미)권리를 가진 국가들간의 사슬체, 그 사슬체에서 무리를 이루어(블럭화) 대립, 분열, 경쟁하는 단위로 전환되어 있다. 이 변화된 국가간 체제를 오로지 '개인'으로 통과하면서, 민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경쟁하는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개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24) 차혜영, 「박물관 실험실 은유와 네이션 주체의 구성방식-식민지 시대 여로형 서구 기행문 연구」, 『한국문화이론과비평』, 45,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09,12.

2) 개인여행자의 정체성-소비자/국민

(1) 개인여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 여행비즈니스 네트워크

지금까지는 국경간 이동, 즉 여행에서 국가간 경계의 작동,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연결과 개방으로 확장되어 운영되기도 하고, 폐쇄적 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국가·자본·시장의 연결 사슬을 통과하는 경험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경계의 장벽/통로인 국경통과 후 도착지에서의 여행은 어떠할까? 여행은, 국경·세관·환전을 마친 후, 목적지 도시로 이동하고 숙소를 찾는 것으로 이어진다.

영국에 도착해서의 정인섭은 (항구 하위치에서 세관, 국경의 여권조사를 거친 후) “기다리고 있는 룬돈직행열차를 타고....오전 7시경에 리버풀 정거장에 내려....자동차를 타고 YMCA로 찾아”가는 여정을 거친다. 그러나 “불행히 빈방이 없어 (YMCA)간사의 소개로 다른 사하숙으로 찾아”간다. 이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사하숙에서도 방이 없다는 소리에 정인섭은 “동경유학시대에 방을 빌리러 다니다가 여러번 거절 당한 기억이 있기에 혹 그가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고의로 투숙을 거절하는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따지지만 “내가 돈버리를 싫어할 리가 있겠어요”하면서 역정을 내는 여주인 앞에 물러난다.²⁵⁾

이처럼 런던에서 방을 찾는 경험에서 그는 피식민지인으로 일본에서 겪었던 배제와 멸시의 체험을 떠올린다. 실제로 『조광』에는 ‘셋방살이 찾는 고생살이’라는 특집으로 30년대 지식인들이 과거 1920년대 유학시대를 회고하는 추억담에서 하숙 찾기의 고생살이, 주인집 딸과의 로맨스 등 대중적 회고담이 실려 있다.²⁶⁾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에서의 방 찾기에 식민지/피식민지, 조선인/일본인이라는 정치적·민족적 경계가 작동했다면, 1936년 영국에서 방찾기는, 기존의 민족적 경계 및 동양인으로서의 열등감과 다른 맥락으로 경험된다. 상업적 비즈니스 맥락에서 ‘돈이면 만사 오케이’고, 수요와 공급의 규칙이 작동되는 시

25) 「영국문단 순례」, 『조광』, 1938. 5, 122-123쪽.

26) 박영희의 「셋방 찾는 고생사리」(『조광』 10, 1936.8.). 이런 류의 회고담에 대해서는 줄고, 「1930년대 일본체험 회고담 연구1, 로맨스의 공통기억과 식민지의 문화적 위치」(『한국언어문화』4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참조.

장 시스템의 경험인 것이다.

이처럼 정인섭의 개인 경험은, 서구를 여행하는 동양인이 식민/피식민, 동양/서구인이라는 프레임에서, 자본주의 세계질서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소비자)의 프레임으로 변환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런 개인 경험은 호텔, YMCA 등 자본 및 비국가적 종교적 네트워크, 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여행비즈니스 네트워크에의 접속과 그 접속의 기본요건으로서의 언어적 가능성(영어 구사 능력)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기반 덕분에 그는 '세계를 여행하는 개인 여행자'라는 자의식과 정체성을 갖고 여행하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어렵게 숙소를 구하고 나면, 숙소에서는 본격적인 관광, 학회참석, 문예 및 학예여행, 방문 등 여행목적 실현을 위한 준비와 계획-지도 구입하기, 안내서 읽기, 지인 연락 등- 여행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한다. 예컨대 영국에서 그가 겨우 잡은 숙소에서 그는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서 편지를 여러 장 쓰고는 룬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조사할 여러 가지 여정 프로그램을 생각하고.....또 박물관 작가구락부, 문예사적, 미술, 기타 일반 관람에까지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나가서 룬돈 지도를 사야 될 것 같아서 응접실로 나가 서적상점을 주인에게 물었다"²⁷⁾와 같은 식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예이츠를 방문하기 위해 작가구락부 주소를 찾아 연락을 하고 방문약속을 잡는 식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환전 경험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하에서, 국가적 단위에서, 통화 관리를 통한 보호와 폐쇄로 전환하는 상태를 보여준다면, 파리에서는 정인섭을 어수룩한 동양 여행자라고 여겨 속인 은행 여직원을 상대로 분노하고 따지며 실갱이 한 경험을 통해 시내 관광하는 개인의 모습이 부각된다.

9월15일 오늘은 베르사이유궁을 구경하여야겠다. 아침 8시반쯤 호텔을 떠나서 '미첼똥'000喫茶점에서 손가락같이 길다란 팡 두 조각과 커피 한잔을 마시고 카메라와 쌍안경을 메고 한시라도 손에서 놓지 않는 파리가지도와 베르사이유궁 안내서를 쥐고 '몬파르나스 정거장'을 향했다.

27) 「영국문단 순례」, 『조광』, 1938, 5월, 124쪽.

지도를 보니 육삼부룩공원 속을 질러가는 것이 가차워 보이기에 동편입구로 들어가서 한참 가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다. 예비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도루 호텔로 가서 유학생 한사람을 대(동)하고 루삭가에 있는 어떤 적은 은행에 가서 영국화폐를 불란서 돈으로 바꾸려고 그곳 사무원에게 1파운드 지폐를 내어 주었다. 그러니 그 여사무원이 즉시 환산해서 약간의 불지폐와 은화폐를 내어 주는데.....(「파리의 추억」 2회, 『조광』, 1940.4, 261-262쪽)

위의 글은 정인섭이 보여주는 파리 관광객의 아침풍경이다. 바게트 빵과 커피로 아침을 대신하고 카메라와 쌍안경을 휴대하고, 시내 관광지도와 여행안내서를 지참하고, 환전을 위해 은행에 들르는, 전형적인 파리 관광객의 풍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은행 여사무원이 1프랑을 속이고 안 주려던 작은 사건, 실갱이 끝에(대동한 유학생의 통역을 통한) 기어코 돈을 받아낸 경험을 기록한다. “이 여인의 소행을 보아 파리인들이 얼마나 눈치가 명석한가를 추측했다. 남을 속여먹는데도 그 묘한 틈을 이용하는 것이 이 모양 같으니 서투른 시골사람들이 여간 혼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이처럼 그는 동양의 여행자라고 주눅들지 않는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유학생(일본인 유학생의 추정된다.)을 대동하고 따져서 1프랑이라도 받아내고 마는 당당한 개인, 구매자(소비자)이다. 이처럼 국경 통과 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그의 여행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반면 1920년대의 여행기들은, 여행지 도착부터 마중 나온 유학생 동료, 친구나 지인, 또는 선교사 단체 등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1920-30년대 세계여행기들을 종합해볼 때, 세계여행시 현지에 있는 유학생 친구, 선교단체²⁸⁾에게 편지와 전보를 통해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안내인이 나와서 현지 적응과 안내, 통역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안내인이 누구냐에 따라 여행자 지식인의 운동이념·인맥계보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한다. 1920년대 김준연의 경우 그런 안내 정보·조선인 독일 유학생 정보, 독일 올 때 전보칠 주소, 독일물가,

28) 박인덕의 여행에서 선교단체의 안내가 등장한다.

1차대전 이후 날뛰듯 변하는 마르크화 시세에 따른 환전정보등- 을 언급한 글을 독일에서 동아일보²⁹⁾에 보내기도 했다. 이극로, 김창세 등 각각 해외 독립운동 인맥과의 관련 성향에 따라서 여행안내자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벨기에 브뤼셀에서 1927년 열린 '피압박민족대회'에는 유럽 유학생들이 독일 프랑스 등 현지에서 합류하고 조선에서 대표가 파견되기도 했었다.³⁰⁾ 이런 내용들이 모자이크처럼 회고와 기행문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때로는 이념적 성향이 다른 조선인 유럽여행자들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도착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안내와 통역을 해준 현지 지식인-서영해, 신성모-이 드러나기도 한다. 때로는 현지에서 안내·통역해 준 지인의 위상(해외독립운동을 하거나 소련 여로에서의 성격 등)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ABC 등으로 표기했다가 해방 후 복원되는 경우도 있다.³¹⁾ 그리고 이를 통해 유럽, 미국 등에서 조선인 유학생·지식인의 네트워크³²⁾가 감지되기도 한다.³³⁾

이처럼 세계여행을 안내·통역해주는 현지 조선인 유학생·지식인 네트워크는, 사실은 조선을 벗어나서 연결·부상되는 '네이션(민족)의 네트워크'의 감각이다. 특히 철도로 연결되는 1차대전 이후 신흥 독립국들에 대한 여행과 병행되는 이런 해외지식인 동료 네트워크야말로 '바깥에서 느끼는 민족국가의 상상력'

29) 김준연 「독일가는 길에」, 「독일정변기」, 『獨逸(독일)의精華(정화)』 등. (『동아일보』, 1922-23년 연재.)

30) 1927년 2월 10~14일, 벨기에 브뤼셀 에그몽 궁에서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김법린, 이극로, 이미륵(이의경), 황우일이 참석한다. 김법린은 파리한인회 회장 자격으로, 재유럽 유학생이었던 이극로와 황우일은 서울 한인작가언론인협회 소속으로, 이미륵은 재독 한인학생회 소속으로 대회 본부에 등록했고, 김준연과 허현(당시 세계여행중이었던)은 비공식적으로 대회를 참관했다.(『동아일보』, 1927.3.23. 참조)

31) 이극로의 경우 3.1운동 이전부터 시작된 중국, 간도, 독일, 유럽 체험을 1936년 『조광』에 게재했고, 해방 후 『고투40년』(1947)에 간행했다.

32) 한승인은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사람들』(1988, 일월서각)에서, 미국에서 처음 본 태극기를 본 광경(도미 후 북미 조선인 유학생 동포 환영회 등에서), 3·1운동 이후 헤어진 고향 친구와의 만남의 감격을 기술하고 있다.

33) 참고로 공진항의 회고록을 보면 나혜석의 여행에서도, 나혜석·최린의 유럽여행의 안내·통역을 맡아준 공진항 이정섭 등 프랑스 유학생 지식인 그룹들이 언급된다. 물론 나혜석은 이런 언급 없이 자기 혼자 보고 느낀 것처럼 기술했다.(공진항, 『이상향을 찾아서』, 공진항 희수기념문집간행위원회, 1970.12.)

의 물질적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 지식인의 해외여행은, 여권 통과를 비롯한 국경에서의 소속국가 증명의 루트를 통해 조선의 부재와 일본국가(스테이트)소속임을 입증함으로써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경험, 동시에 역설적으로 현지 도착과 동시에 작동하는 통역, 안내, 현지 적응에서 필수적으로 거치는 해외조선 지식인의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민족(네이션)의 경험³⁴⁾이 동시에 짝하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그런데 1936년시점에 연희전문의 교수라는 신분으로, '세계언어학자대회'라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여행길의, 영어가 유창한 개인여행자 정인섭은 이런 해외에서의 조선인 네이션(민족)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았다. 접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네이션(민족) 네트워크를 삭제한다. 예컨대 영국에 도착해서 안내해줄기로 한 유학생 친구가 연락두절되었다든가 할 때만 언급될 뿐이다. 그의 여행은 유창한 영어로, 여행비즈니스·여행사, 관광안내지도·시스템 이용, 호텔, YMCA 등 비국가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는 개인 여행의 특징을 보여준다. 여행중에 만난 현지인 외국인이 더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
- 34) 필자는 1920-30년대 여행기를 대상으로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현대문학의 연구』24,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11)에서 소속 국가증명(일본)의 경험을, 「'박물관 실험실' 은유와 네이션 주체의 구성방식-식민지 시대 여로형 서구 기행문 연구」(『한국문학이론과비평』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12)에서 네이션(민족) 정체성 형성의 경험을 살펴본 바 있다.
- 35) 연희전문 상과(경제학) 교수였던 이순탁의 비슷한 시기(1933-34년-안식년 기간)의 유럽일주기에서, 이순탁은 가는 곳마다 의식적으로 유학생단체, 주소록 등을 탐문하고 이전의 조선인 여행자 체류자 이야기를 전한다. 이순탁, 『최근 세계일주기』(조선일보 연재), 『우라키』(재미 유학생회 기관지) 소재 미국유학생 체류기, 흥난파(『중앙』 연재) 등 대부분의 여행기 저자들은 도착시의 유학생 네트워크, 미국의 경우 하와이 동포들의 현지주민 및 독립운동 네트워크가 암시적으로 소개된다. 일반적으로 고국에서 온 지식인 환영회, 고국의 현재에 대한 연설 등으로 이루어진 '감격의 밤'이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참고로, 유럽을 일주하고 귀국길에 미국에 들른 나혜석·김우영 부부의 경우, 일본제국의 외교관 김우영에게 미국 유학생 및 미주 독립운동 단체에서 폭력적인 비난과 공격이 있었다. 이 체험을 나혜석은 『삼천리』 여행기에서 쓰지 않았지만, 환승인의 회고기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일월서각, 1988), 나혜석·김우영 부부의 아들 김진의 회고를 중심으로 한 『그때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고』(김진·이연택 공저, 해누리, 2009)에서 언급된다.

이 '인적 네이션(민족) 네트워크'를 지우고, 위에서 본 국경의 소속(Japan)증명을 거친 후, 현지에서는 세계자본주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행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고객으로 정체성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인여행자의 안전을 보증해주는 것-국가/해외 일본인 네트워크

그런데 개인으로 여행하는 정인섭의 정체성의 기반에 있는 것은 이런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만은 아니다. 해외여행에서 느끼는 곤란, 낯선 환경과 시스템에 끝없이 적응해야 하는 피로와 여독, 이것은 그 낯선 타국에서 고향에 의 그리움, 고향사람과 만나서 느끼는 반가움과 동질감으로 해소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20-30년대 여행기의 경우 마중 나온 지인과의 만남, 거기서의 '반가움'이라는 압축된 표현 속에 풀어진다. 마중 나온 그들과 밤새 이야기하는 고향의 동질감 확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민족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정인섭의 경우, 타국에서 느끼는 고국의 향기는 이와는 전혀 다른 변동의 지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공적, 사적 해외 '일본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 느끼는 '고국의 향기'이다.

나는 이 문 좌편을 “차가르텐”이라는 대공원을 지나갔다.... 외국사람들이 많이 출입했든 관계로 그런지 다른 나라에서는 나를 신기한 표정으로 대하더니 이곳서는 내가 그다지 흥미있는 존재가 못되는 모양같이 보인다. 먼저 여행권조사관계로 대사관을 거쳐 다시 총영사관있는 곳을 찾아가는 길에 어떤 동양인 사람하나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모자를 반쯤 벗고 내게 인사를 하고는 지나간다.... 누구인지 아지도 못하건만 나도 반가히 답례를 했다. 이국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심정은 이런 향수를 신고있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여관과 견학 등 교섭에 편의를 입기위해서 일본인회관으로 찾아가서 잠깐 쉬는 동안에 거기에서 정답하든 손들 입에서 순군의 우승을

36) 동아일보에서 연재하는 서구행 기행문이 대부분 서간문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일본유학생의 초기 기행서간문의 존재 역시, 이런 '바깥에서 느끼는 네이션(민족) 감각'의 장르적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엿듣고는 무한히 깃버했다. 어쩐지 다리와 팔을 뺏내고 다닐 수있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오랜만에 사먹는 쌀밥도 꿀맛 같았다.....나는 소개장을 가지고 숙소로 정한 '마르브르케르4번가에 있는 「호스피스 에스 베스텐스」라는 하숙을 찾았다. 비교적 조용한 곳인데 여자가독교청년회계통에서 경영하는 것이어서 비교적 염가로 지낼 수 있는 곳이다....이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데 비용은 상상보담 꺾도 저렴하였다.〔백림기〕, 『조광』, 1939.8, 101-102쪽.)

이렇게 베를린에서 그는, 일본대사관, 총영사관 가는 길에 만난 동양인은 모자를 벗고 말없이 인사를 나눈다. 먼 곳에서 만난 반가운 동포이다. 또 베를린의 일본인회관³⁷⁾에서, 등록화폐라는 환전제도의 정보를 얻고, 저렴한 숙소 정보를 얻는다. 바로 직전에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손기정의 포스터가 거리에 붙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본인 회관에서 난생 처음 미짱 이발을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과 정담을 나눈다.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쌀밥을 먹고, 올림픽에 참석했던 연전농구부의 이상백과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고, 일본 요코하마은행 베를린 지점(‘운터 덴 린텐’가에 있는 황빈정금은행지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베를린은 여행자 정인섭에게 일본이라는 국가의 그늘막을 체험하게 하는 장소, 유럽 한 가운데 있는 고향인 것이다. 또한 베를린 외에도 가장 중요한 여행목적지, 세계 언어학자 대회가 열렸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일본영사관을 통해 여학교 시찰을 타진하고 안내를 받아 학교를 방문하고 교장의 가족과 만나기도 한했다. 이태리에서는 일본재류민들을 통해 비공식적 환전정보를 알게 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그는 분명 세계를 여행하는 소비자 개인이기도 하지만, 일본대사관, 일본총영사관, 일본인회관, 현지 재류일본인사회를 통해 보호받고

37) 베를린의 일본인회관은 1934년에 개관했다. 독일 일본인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음식점 목록, 상점 광고, 일본인 사회의 조직 및 입회원서, 기타 -등이 제공되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도판 자료 등에 대해서는 『言語都市 ベルリン 1861-1945』(和田博文 外, 藤原書店, 2006.)을 참조했다. 참고로 필자가 일본의 근대 해외표상 및 기행문을 조사하면서, 같은 시리즈로 나온 『言語都市 パリ』(1862-1945)』, 『パリ 日本人の心象地図』(1867-1945)를 함께 살펴본 결과, 유럽에서 당시 공식적으로 일본인 회관이 존재했던 곳은 베를린뿐인 것으로 보인다.

안내받는 일본 국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이런 해외 일본인 네트워크 및 국가 소속의 보호망을 통해 그 스스로 편안한 고국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세계와 개인이 만나는 방식에서, 그의 여행은, 이전시기 민족의 네트워크가 사라지면서, 자본과 서비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개인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시장속의 자격을 갖는 개인'은 국가의 보호와 보증하에 시장에 입증해야하는 지점, 국가적 네트워크에의 선명한 접속 지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접속상태는 이전시기부터 전제된 국경의 소속증명의 의무 같은 강제와 억압의 면모가 아니다. 총영사관을 통한 자국민 관리, 일본은행해외지점, 환전안 내, 자국민보호, 연락처 등 자국민 정보, 그리고 자국민의 세계학회에서의 민간 교류에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로 기능하면서, 보호의 그늘이자, 자부심의 원천이고, 안온한 쉼터이다. 무엇보다 세계라는 균질화된 시장 시스템에 국민을 개인소비자(구매자)로 매끄럽게 출전시키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인섭의 여행기에서, 개인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촘촘하고 친절한 네트워크, 이 국가의 따듯한 그들은, 능력있는 개인 여행자의 자부심, 자본주의 시스템의 합리성과 결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다. 즉 정인섭의 여행기에서 시장·자본주의 시스템에 개인으로 접속하는 구매자(소비자)개인과, 국가간 시스템에서 권리를 갖는 창구로서의 국가의 국민은 분리불가능한 하나로 표상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 즉, 국가와 시장이 하나로 작동하는 국민국가들간의 세계체제라는 실체, 그 속을 개인(소비자/국민)으로 통과하는 개인이라는 주체성의 상태는, 정인섭의 여행기가 민족 주체성을 탈피했기 때문에 비로소 부각된 지점이다.

3. 자본주의 도시문화의 세계적 동시성과 서구표상 정치학의 변동

1) 유럽 거대도시 표상의 세계적 동시성

앞장에서 살펴본 것은, 국경을 통과해 입국하는 절차와 시스템, 그것을 통과

하는 개인여행자의 정체성, 거기에 관여되는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서의 세계체제의 차원에 관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경을 통과해, 유럽에 들어와 무엇을 보고 썼는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경을 통과한 이후 숙소를 잡거나 하면 자신의 여행목적을 실현한다. 실제로 그는 학회 참석(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일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문예여행에 대한 관심을 자주 언급하며 문인동상, 문인생가 등을 방문하고, 아일랜드에서는 에이즈와 극장 등을 방문한 내용을 길게 서술한다.³⁸⁾ 이런 문학기행 기록을 제외한다면, 유럽에 대한 지역표상, 즉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에 집중한다면, 의외로 단순하다. 그가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보고 쓴 것은 카페, 댄스홀, 카바레, 대중오락장, 무도장, 그곳의 거리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유럽의 밤거리의 퇴폐적 대중문화와 부박한 환락문화는, 런던, 파리, 베를린, 심지어 아일랜드 벨페스트, 나폴리, 로마 등 나라를 가리지 않고 공통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환락의 유럽을 그는 지치지도 않고, 긴 지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서술된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인이 서구도시를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긴 경우, 대부분 파리, 베를린 등 유럽 도시 자체의 아름다움, 도시를 가득 메운 아름다운 예술적 건축물, 아름답게 정비된 도로, 성당, 미술관, 박물관, 전물용사비 등과 같은 국가기념물 등의 위용에 압도되고 감격을 토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기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에펠탑, 개선문, 영국의 국회의사당, 유명 성당과 미술관, 박물관, 궁전 등과 함께, 그것들의 유래와 연결된 그들 국가의 역사와 인문지리적 지식이 언급된다.³⁹⁾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정인섭의 경우, 그런 조선인 서구여행자의 일반적 특성들을 이상하리만큼 배제한다. 실제로 다른 여행기와 유사한 관광 기념물들을 보았을 텐데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주로 유럽도시의 부박한 욕망에 들뜬 남녀들로 넘쳐나는 유흥지의 밤거리, 그곳의 극도의 퇴폐와 쾌락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이점,

38) 정인섭의 아일랜드 여행 및 아일랜드 문학에 대해서는 김모란, 「"아일랜드"의 전유, 그 욕망의 "이동(移動)"을 따라서」(『사이(SAI)』 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등을 참조

39) 줄고,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1920년대 해외기행문」, 『현대문학의연구』24, 현대문학연구회, 2004.11.

즉 서구도시의 무엇을 그리느냐에 있어서 정인섭의 여행기는 예외적 희소성을 보여준다.

백림의 야경이 그럴듯하다. 일행 30여명이 버스(버스)에 실려서 시가를 빙빙돌다가 페미나 라는 커다란 카바레로 들어갔다....이렇게 고가로 파는 것은 그곳이 무도장으로 되어있는 까닭이었다. 수백명 남녀들이 모여서 춤추며 노는 유흥장...백림의 밤은 뛰고 출렁거리고 사뿐사뿐하는데 이 무슨 침울한 동방의 주접장인고! 거기서 나와 일행은 또 한군대를 찾아가니 거기는 소위 대중오락장인 모양이어서 여러 가지 분리된 장면이 있는데 그야말로 모도 '난센스'를 위한 오락협회당으로 되어 있다. 거저 웃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또한 춤추고 ...여인들까지 모다 뽀뽀의 비루에 취하여 무대우의 도화역자(道化役子)⁴⁰들의 울동에 응하면서 무한한 유희를 맛보고 있다. 어떤 무대서는 우뢰와 번개 그리고 비오는 정경을 나타내게 하면서 거기 맞추어 高聲으로 민요를 모두들 합창한다. 安價한 여유와 순간의 쾌락인 모양이다.

12시가 넘어 레지라는 무도장으로 갔다. 여기는 한쪽 벽에다가 전기장치로 전광을 이용해서 별별 파도형을 현출시키고 있다. 그 과학적 묘기는 실로 감탄할 바로서 무한히 찬란한 전등장치와 화려한 색등의 교차, 그리고 그 전광의 난무와 한가지로 천태만상으로 춤추며 뛰노는 남녀들의 광란은 실로 전율에 가까웠다.〔백림기〕, 앞의 책, 104쪽.)

위의 글은 베를린 도착 후 30여명의 함께 탄 버스 관광을 통해, 베를린의 카바레, 무도장 체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술과 노래, 춤이 뒤섞이고, 현란한 전기장치가 우뢰, 번개 등 과학적 묘기로 환상적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무대장치, 거기서 '전광의 난무와 한가지로 천태만상으로 춤추며 뛰노는 남녀들의 광란'에 전율을 느낀다고 쓰고 있다.

40) 道化役子どうけやくしゃ, 피エロ, 어릿광대.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19세기 전반까지 남아있던 귀족적 고급문화의 취향이,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점차 대중적이고 천박한 오락문화로 변화하는 상황, 이 상황에 전기, 이미지, 소리의 응축, 영화 등 테크놀로지 혁신이 소비적 문화산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이미 잘 알려져있는 바다.⁴¹⁾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 저급하고 선정적인 대중잡지, 대중신문, 시체공시소나 오락장, 무도장 등을 통해 값싼 볼거리와 오락거리에 대한 욕망 및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파리를 비롯한 유럽 대도시의 '시각문화의 폭발'로 표현되는 대중오락문화 역시 잘 알려진 바다.⁴²⁾ "이 시기 유럽 대도시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던 집단오락형태는 공중무도회로서, 1899년 유럽 공중무도회의 수도였던 파리에만 호텔, 카페, 물랑루즈...뮤직홀, 카바레 온갖 부류의 무도장이 376개"라고 한다.⁴³⁾ 특히 카바레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황금기를 맞았고, 대표적으로 마를르레네 디트리히가 출연한 영화등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한다.⁴⁴⁾ 이런 상황은 1차대전 이후 전 유럽으로 더욱 급속히 퍼져나갔고, 대공황 이전 흥청거리는 1920년대 미국적 소비문화⁴⁵⁾의 전파와 맞물리기도 했다. 서구의 이런 부르주아 대중 오락문화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전파와 함께, 상하이와 동경 등 아시아의 대도시에까지 퍼져나간 바이다.⁴⁶⁾

사실상, 영국의 리비스와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천박한 대중문화에 대한 혐오와 비판이 강력한 반향을 일으킨 것, 그리고 정반대의 방향에서 파리로 대표되는 유럽의 대도시의 시각적 이미지들의 엄습, 거기서 탄생되는 시선과 군중의 의미에 대한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⁴⁷⁾도 1930년대 중반, 속

41) 『유럽문화사』 3, 4권(도널드 서순, 뿌리와이파리, 2012), 『바이마르 문화』(피터 게이, 조한욱 역, 탐구당, 1983.) 등을 참조. 『영화와 문학에 대하여』(요아힘 페히, 임정택 역, 민음사, 1997.)에서는 영화 탄생 전후로 위와 같은 대극장, 오락장 같은 저급의 문화오락공간의 상태를 보여준다.

42) 바네사 슈와르츠, 노명우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8.

43) 도널드 서순 『유럽문화사3』, 뿌리와이파리, 2012.

44) 당시 동아일보에도 디트리히 출연의 영화가 자주 소개되고 있다.

45) F L 알렌, 박진민 역 『원더풀 아메리카』(원제: 『Only Yesterday』), 엘피, 2012.

46) 이에 대해서는, 『상하이모던-새로운 중국 도시문화의 만개, 1930-1945』(리우어판, 장동천 외 역, 고려대출판부, 2007.), 『에로틱그로테스크년센스-근대일본의 대중문화』(미리엄 실버버그, 강진석 외 역, 현실문화, 2014.) 참조.

물적으로 자본주의화하는 유럽 거대도시들에 대한 반응이었고 할 수 있다.⁴⁸⁾

이런 맥락에서 정인섭이 묘사한 유럽 거대도시 관광지의 표상은 전간기 유럽 도시들을 휩쓸었던 자본주의적 소비문화, 그 속의 소비·오락공간(카바레, 대중 오락장, 무도장)의 세계적 동시성, 그 대도시 오락문화와 취향의 저급성 차원에서 당대 세계적 변모의 흐름을 체험적으로 관찰 기술한 측면, 사실적으로 반영한 차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세계적 동시성의 유럽도시 표상은 당시 조선인 여행자들 중에서는 희소한 표상이지만, 당대 유럽의 세계적 도시 상태의 차원에서 일반성, 보편성을 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동시성으로 부각된 도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시각과 반응들은 각각이라 하더라도, 전제된 대상으로서의 서구 거대도시들은 공통적으로 19세기적인 상층문화나 고급문화보다는, 자본주의와 기술혁신이 결합된 저급한 오락적 문화산업 및 거대 대중들로 표상된다는 점에서, 서구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비시장’, ‘일종의 관광상품’으로 표상⁴⁹⁾, 혹은 벤야민이나 짐멜이 묘사한 것과 같이 ‘판타스마고리아’의 측면을 갖고 있다.⁵⁰⁾

47) 그램 질로크, 노명우 역,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수잔 벅모스, 김정아 역, 『발터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04, 참조

48) 미리엄 실버버그의 『에로틱그로테스크년센스-근대일본의 대중문화』는 일본 동경 아사쿠사의 속물적인 하류문화의 에로그로테스크를, 거칠고 조야한 특징 자체를, 일본 국가주의와 반하는 다른 이질성, 건강성으로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49) “파리는 세계의 어떤 도시보다도 스스로를 매력의 도시, 문화와 오락의 도시로 마케팅하는데 성공했다. 매력적인 악덕의 분위기, 죄악이 안겨주는 전율, 다양하고 화려한 요리, 온갖 호텔이 파리에 있었다. 사실 파리의 서민은 시내 중심가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곳은 사실상 부르주아지와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었다. 부르주아의 취향과 감수성은 몰랭루즈와 폴리베제르(카바레)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천박한 구경거리를 즐긴다는 것이었다. 도시 파리는 19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소설과 연극에서 묘사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제공했다.” (도널드 서순, 앞의 책, 276-281쪽)

50) 정인섭의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서구도시표상은, 여행기로서는 희소한 경우지만, 당대 대중잡지의 서구 유행 소개 담론이나 정보, 가벼운 루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된 내용이기도 하다. 「世界人肉市場狂舞曲, 巴里의 에로 萬華鏡」, (『별건곤』46호, 1931.12.) 등.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 구매자(=동양 여행자)와 관광상품(서구) 표상의 지정학

그런데 이런 정인섭의 유럽 도시표상(관광상품, 거대소비시장)은 조선 여행자 속에서의 예외적 희소성이나 그 소재적 희소성이 갖는 세계적 동시성 혹은 세계적 보편성이라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도시의 여러 가지 표상 중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하여 기술한다는 것 자체에, 그가 속한 장의 공공적·집단적 심상지리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인섭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경을 통과한 이후 접속한 자본주의적 관광 비즈니스 시스템, 유창한 영어구사력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개인정체성, 그리고 해외 조선인 네트워크로서의 네이션(민족)과 결별하고, 일본영사관 일본인 회관 등 해외 일본 네트워크를 통과한 국민/개인 정체성을 포함한 여행자 정체성을 견지했다고 할 수있다. 이런 개인(소비자/국민)의 자격과 정체성으로 유럽에 들어온 후, 그가 선택적으로 전면적으로 서술하고, 묘사한 서구가 이러한 '하나인 거대한 소비시장', '그 자체로 관광상품인 서구'(문화제도의 나라들이 아닌)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1936년 정인섭의 여행체험에서 서구는 정치적으로는 (민족의 탈피를 통해) 따라 배울 미래의 민족국가의 모델이 아니라, 이미 권리를 갖는 국가들의 대립과 분열(세관검사와 외환통제를 통해 보듯)의 상태에 놓여있고, 문화적으로도 그 정치적 국가가 가져야할 예술, 문화적 완성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시장적 접속을 통해-여관주인, 시계상점 주인, 세관직원, 은행 여사무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여행사 등.....과 아웅다웅하고 실갱이하며-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주체에게, 서구는 개인적으로 선택가능한 잡다한 욕망들의 전시장으로 현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시장으로서의 서구, 한갓 상품으로 전락한 서구라는 대상설정과, 형식적으로 균질한 거대 세계시장에 던져진 개인이라는 여행자 정체성은 상호 규정적인 것이다. 서구에 대한 '문명의 모델'에서 '소비상품'으로의 이런 표상변경은, 도널드 서순이 암시한 바와 같이, 당대 세계의 사실적 특성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분명 이 시기 식민지 근대 조선인이 선택한 정체성이 창안한

표상이기도 한 것이다.⁵¹⁾ 그가 이들 도시를 서술하는 면모를 자세히 보자.

A) 피곤한 몸을 차간에 싣고 베르사이유 궁전의 내부 외부를 생각하면서 다시 몽파르나스 정거장으로 도라왔다. 이 근처는 최근 새로 번창하게 된 곳이라는데 해수욕장의 커다란 양산 즉 오색의 찬란한 비취 파라솔을 세운 깎다검 로천음식점이 들어있다. 그 양산의 폭은 보통 것보담 배나 큰 것으로서 채색한 얼룩덜룩한 등의자와 한가지로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한다. 요사이 경성에도 본정통종방점옆구리에다가 비슷한 풍경으로 '푸르츠·파라'라는 것이 있다. 물론 규모는 몇 배 큰 것이여 호화로운데, 동경千疋屋(센비키야) 본점이라고들 하고 그 본점 주인은 모실업부호의 아들로서 불란서 파리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이것을 경영한다고 하기에 몇 번 가보았다. 아마도 '몽파르나스' 일대의 喫茶店 풍경을 본뜬 것 같았다. 그러나 본정처럼 어둡침침하고 갑갑한 곳은 파리에 없을 줄 안다.〔파리의 추억〕 2회, 『조광』, 1940.4, 265쪽.)

B) 다시 바른 편으로 굽어가면 '오페라 극장' 앞으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파리를 제일 변화한 일대라고 하는 '이탈리안 街', '생 마르탱', '레뷰브릭 광장', '바스티유 광장'으로 통하는 궁자형(弓字形) 廣이 70간 길이 紵(주) 1리반이나 되는 거리로 산보하게 된다. 이 길은 원래 루이 14세가 파리 內城의 경계선을 만든 것인데, 대상점, 대회사, 대식당, 대카페, 대오락장 등 말하자면 東京의 銀座와 淺草를 합한 듯한 곳이며 경성으로 치면 종로통이나 본정통 같은 곳이다. 더구나 야시장 같은 雜路 속에 화류계의 여성들이 출몰한다는 곳이다.〔파리의 추억〕 3회, 『조광』, 1940.5, 249-250쪽.)

C) 몽마르트라는 이름은 일찍이 책에서도 보았고 영화에서도 보았는데 파리의 유흥가로 알려진 곳이다. 나는 무척 새로운 호기심이

51) 실제로 그는 유럽을 여행하며 박물관과 베르사이유 궁 등 국가적 기념물들을 관광했지만, 거의 쓰지 않거나, 독일에 패망한 파리라는 방식으로, 40년대적으로 선택적으로 전유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논할 예정이다.

나서 대체 여기에 무엇이 있나하고 좌우로 살펴보니 ‘파노라마 관’, ‘바리에테 극장’ 기타 여러 가지 유흥장이 있다. 말하자면 東京천초 그대로인 것 같다. 큰 길가는 獵奇場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든 옆길에 터져있고 사람이 번적거리는데로 찾으려고 한참 걸어가니.....목적한 엽기장소의 발견을 단념할 만큼 피로하여졌다. (『파리의 추억』, 3회, 위의 책, 254쪽.)

인용문 A) B) C)에서 정인섭은 분명 생애 처음 보았을 다른 문화 예술, 건축물들을 못 본양 눈감고, 또 생애 처음 보았을 천박한 싸구려 오락문화만을 택해, ‘일즉이 책에서 보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경성이나 동경에도 흔해빠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는 파리의 밤거리를 만보하며, 파리에서 제일 변화한 일대라고 하는 ‘이탈리안 街’, ‘생 마르탱’, ‘레뷰브릭 광장’, ‘바스티유 광장을 산보하고, 대상점, 대회사, 대식당, 대카페, 대오락장을 구경한다. 그런데 가장 변화하고 화려한 일대인데, 이전 여행기들처럼 “난생 처음보는 아름다움과 감격”이라고 기술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즉이 책에서도 보았고 영화에서도 보았던” 것이며, “東京천초 그대로” 이거나 “東京의 銀座와 淺草를 합한 듯한” 곳이며, “경성으로 치면 종로통이나 본정통 같은 곳”이다. 몽파르나스의 카페는 동경 아사쿠사, 서울의 종로(경성 본정통)의 깍다점들과 비슷한 것들이다. 나아가 C)에서처럼 그는 ‘말로만 듣던 파리엽기장소의 발견’⁵²⁾을 계획하고 파리의 뒷골목을 피곤할 정도로 배회하기도 한다. “내가 상상한 것은 일종의 유곽 같은 것일가 했는데 동양같이 공공연한 집단적 직업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거리의 불도 밝지 않고 문간에서 사람을 이끄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조용하고 음침해서 무슨 귀신이라도 나지 않을가하는 빈민굴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화려하게 눈길을 끄는 파리 시내에 수백개 널린 카페, 카바레, 무도장들을 ‘이미 알고 있다.’ ‘가치없다’라고 경멸의 시선을 보내며, 파리의 뒷골목(모르는 곳)을 당대 경성의 밀매음굴(아는 곳)로 상상하고, 그런 곳을 찾아보겠다고 파리의 뒷골목을 헤매

52) 앞서 언급했듯, 『世界人肉市場狂舞曲, 巴里의 에로 萬華鏡』(『별건곤』46호, 1931,12)과 같은 대중잡지의 에로그로 담론을 통해 알려진 이야기일 것이다.

며, 그곳을 “음침한 조선의 빈민굴같다”고 표상한다.

이런 감각, 즉 당대 1920-30년대 유럽의, 인류 최초로 마주하는 메트로폴리스의 풍경에 세계인들이 경악하거나 열광할 때, 조선에서 온 여행자 정인섭은 ‘책에서 봤다’, ‘이미 잘 알고 있다’, ‘경성에도 동경에도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 감각은 무엇인가? 이 부인, 이 의도적 눈감기를 무의식의 차원에서 후발근대지역 출신이 보이는 왜곡된 저개발의 모더니티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정신분석보다는 이 표상에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의 층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즉 파리로 대표된 서구 자본주의 도시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미 알고있다는 언표는, 일차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세계 소비문화의 전파, 대중잡지, 영화, ‘몽파리 공연’과 같은 레뷰 등 당대 경성의 시각, 즉 실제로 에로그로넨센스로 유행한 당대 경성의 소비문화에 이미 익숙한 시선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전파를 통해 공유된 지식의 차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주체의 시선, 태도이다. 그것들이 ‘별 것 없다, 가치없다, 저급하다’라는 반복된 언표에는, 시장에서 상품을 대하는 소비자의 우월적 시선이 서구를 대하는 동양인 관광객의 시선에 관철되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개인소비자(구매자)의 우월적 시선을 통해서, 파리의 몽파르나스=동경 아사쿠사=경성의 본정통이 등가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애써 알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질적으로 등가화될 수 없는 것(파리, 동경, 경성)을 등가라고 애써 강조함으로써, 시장이 강요하는 형식적 평등에 참가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형식적 평등 이면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실재(동양/서양, 식민/피식민)에 대한 공포와 의도적 눈감기, 방어적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다.⁵³⁾

1930년대 중반 서구도시들을 저질의 쾌락소비상품으로 표상하는 정인섭 여행기의 내부에는 이 세 가지 단층, 즉 정보와 유행을 통해 세계적 동시성으로 펼쳐나간 도시 대중문화라는 역사적 현상, 국가와 시장적 시스템에의 적응을

53)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진우 역, 『냉소적 이성비판』, 에코 리브르, 2005, 참조.

선택한 식민지 출신 개인(국민/소비자)의 정체성 선택과 서구표상 정치학이 연동되는 지정학, 그리고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형식적 평등 이면에 엄존하는 정치적 힘의 위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관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의 여행기에는 자본주의 시장으로 균질화된 세계시스템을 통해 서구에 들어온 주체의 시선, 동서양의 질적 위계가 철폐되어 균질화되고, 서구는 하나의 관광상품, 돈을 주고 구입 가능한 싸구려 상품으로 표상된다. 여기에는 분명 대공황을 겪는 유럽, 만주국 수립 후 공황에서 회복되는(될 것이라는) 동양의 여행지라는 시좌설정이 배어있다. 즉 기존의 서구 문명지와 동양인 여행자가, 관광객과 관광지라는 시선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로 재배치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재배치에는 앞서 언급한 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 세계변동(공황과 블록경제화), 만주경기에 대한 보도(만주봄)등을 통해 증가한 조선인의 경제적 낙관주의 및 조선공업화론에 대한 환상이 존재한다.⁵⁴⁾ 그리고 1933년 국제연맹의 만주국 불승인을 계기로 일어난 서구 구제국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한 일본인·조선인의 서구에 대한 반감도 개입되어있다. 그리고 대공황에 따른 위기 타개 및 시장 확보를 위해, 폐쇄적인 '엔블락' 자급자족전략을 세운 일본 및 그 일본의 그늘막을 경유해서만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달라진 세계체제의 상태에 대한 승인의 감각이 전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를 별것 없다, 가치 없다, 돈만 주면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표상하는 이 방식은, 한편으로는 개인여행자 정체성 중에서 소비자(구매자)정체성이 창안한 대상(서구)표상이다. 동시에 그 서구라는 상품을, 상품 자체로서 비교하기보다, 애써 싸구려다, 가치없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갖고 있다라고 반복하는 냉소주의적 심상지리는, 개인여행자 정체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국민정체성, 일본 그늘막 속에서 상품을 판단해야하는 대상(서구)표상이다. 이는 세계라는 시장이 강요하는 형식적 평등에 참가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형식적 평등 이면에 존재하

54) 지수걸, 「1930년대 전반기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건설전략'-조선공업화와 엔블락 재편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51,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송규진, 「만주사변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대만주 무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0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서정의, 「세계대공황기(1929-1936) 일본의 무역구조와 무역정책」, 『응용경제』 5, 한국응용경제학회, 2003.

는 불평등(동/서, 식민/피식민)이 주는 공포에 대한 의도적 눈감기, 방어적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국가와 시장이 만든 형식적 평등과 실제의 불평등은, 개인여행자 정체성을 통해 '방어적 냉소주의로' 유지되지만, 서구라는 상품 앞에서의 매혹과 거부의 형태로 과열된다. 매혹과 공포는, 개인주체를 보증해줄 더 큰 그늘막을 통해서 극복된다. 이는 36년 여행체험을 회고적으로 쓰는 현재시점, 즉 40년, 41년 독일에 공격당하는 유럽 도시들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 및 일본이라는 국가보다 더 큰 대안적 그늘막-3국동맹-이라는 '파시즘 전범국가 연대의 심상지리'를 통해 극복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탐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4. 결론 및 남는 문제

1937년 일본이 일으킨 중일전쟁-당시 언어로 북지사변, 북지전쟁-이 언론을 통해 중점 화두가 되고, 1938년 무한 삼진 함락과 함께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고 고노에 내각의 신체제 선언 및 40년 7월 대동아신질서가 제창된 바 있다. 정인섭을 포함한 다수의 조선 지식인들의 전쟁협력이 시작된 시기이다. 이런 전환, 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서구표상의 변모, 즉 일제말기 서구에 대한 심상지리 변경을, 일제말기의 '사상사적 전환'으로 보는 틀이 일반적이다. 이런 구도에서 조선지식인들의 서구인식, 그 서구인식의 단절과 변경의 근거로서의 교토학과 등의 일본사상사의 수용과 영향이라는 틀 및 그것에 붙을 붙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파리 함락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는 최근의 연구는 물론 당대의 최재서나 다른 지식인들에게도 널리 퍼진 발언들이다.

그러나 이런 틀에서 보면 조선인들의 세계인식에서 일본 의존성만이 전면화된다. 일제말 전쟁협력이 일본의 무력에 의한 강제에 기인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대 '조선지식인의 서구표상전환'을 '일본에서의 사상사적 전환의 영향 및 수용'으로 사유하는 틀은, 조선지식인 자체의 세계관단에서의 능동성(책임)의 영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실상 한일합방이후 국내 민족운동세력에 있어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조선

의 미래를 전망하고 운동을 기획, 실천함에 있어 국제정치의 판도는 언제나 제1순위로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운동세력은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위치에 대한 파악 및 진단, 거기서 자신들을 일본과 대타화하면서 국제사회-구체적으로 1차대전 후 서구 유럽 질서-에 호소하거나, 기회를 엿보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르사유 조약과 함께 만들어진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에서부터 워싱턴군축회의에 대한 기대와 좌절, 코민테른 극동 피압박민족 대회 등, 조선지식인 민족운동세력의 지평은 '국제=조선:일본'이라는 대결구도하에 자신을 설정하는 구도가 1920년대 내내 전제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192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기술적, 미디어적으로 자명화되어 있던 국제, 서구, 세계에 대한 실시간 동시성의 뉴스 유통 네트워크, 조선 지식인들이 공유한 '국제적 조망, 서구, 세계 속에서 일본의 위상과 조선의 미래전망'이라는 체화된 사고틀이 존재한 상황에서, 일제말기 서구를 몰락으로 표상 변경하고, 그 대안의 가치로 동양적인 것의 도래를 꿈꾸는 상상력은, 총력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물리적 폭력적 강제나, 지식인들의 사상사적 전환이라는 일본 수용 및 사상요소를 단선화하는 사고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틀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일제말 서구표상의 전환과 동양의 부상이라는 세계 심상지리의 변동에는 그들의 눈으로 본, 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世界知, 당대 실시간적으로 역동적으로 연루되어있는 서구세계에 대한,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능동적, 논리적(실리적) 판단이 있다는 것이다. 당대 조선지식인들 스스로가 보기에 이세계의 서구·세계와는 다른 서구·세계가 전개된다는 그들 내부의 판단, 그들 스스로 판단한 세계의 전환,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에서는 36년 시점 정인섭의 세계여행체험을 놓고 사유해 보았다.

그의 여행기-1936년 여행체험 및 40년대 기록-은, 대공황 이후 유럽이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로 선화하면서 국가간 물류, 화폐, 인적이동에 있어서 이전 시기에 비해 명백한 폐쇄주의로 전환한 시기였다는 점, 그가 연희전문 교수의 신분으로 '세계언어학자대회'라는 국제학술회의 참여하는 신분과 여행목적,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편의 제공, 와세다 출신 영문학자로서의 유창한 영어능

력이 결합되어 있는 지점을 잘 드러낸다. 그리고 이런 여행의 사회 역사적 맥락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인여행자 정체성과 그것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세계체제의 변화된 환경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이전시기, 여권 통과를 비롯한 국경에서의 소속국가 증명의 루트를 통해 조선의 부재와 일본 소속임을 입증함으로써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경험, 동시에 현지도착과 동시에 연결되는 해외 조선 지식인의 인적네트워크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네이션(민족) 감각과 결정적으로 단절되는 여행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인섭의 유럽여행 경험은, 서구를 여행하는 동양인이 식민/피식민, 동양/서구인이라는 프레임에서, 자본주의 세계질서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소비자)의 프레임으로의 변환을 보여준다. 호텔, YMCA 등 자본 및 비국가적 종교적 네트워크, 쿡,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여행비즈니스 네트워크에의 접속과 그 접속의 기본요건으로서의 언어적 가능성(영어 구사능력)이 만들어준, '세계를 여행하는 개인 여행자' 정체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속의 자격을 갖는 개인' 여행자는, 일본 총영사관을 통한 자국민 관리, 일본은행 해외지점, 환전 안내, 자국민의 민간 교류에서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 국가의 그들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다. 이런 여행자 정체성 속에서 상호적으로 규정되면서 새로이 부상한 서구표상은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자, 잡다한 저질의 퇴폐적 오락문화가 넘치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표상되어 있다.

1936년 시점, 대공황기 블록경제화 분열의 유럽을 경험하며, 시장에 내던져진 개인, 거대한 분열의 경쟁시장, 그 전장=시장에서 개체를 보호해줄 최소한의 국가(非민족)라는 그늘막, 그 소비자/국민의 이중정체성이 만든 새로운 서구표상인 '상품=서구'는 궁극적으로 취득(소비=장악)되지 못한다. 이 매혹과 공포의 분열이 극복되는 것은 40년 쓰는 시점인 2차대전기, 일본이라는 국가보다 더 큰 대안적 그늘막-3국동맹-이라는 '파시즘 전범국가 연대의 심상지리'를 통해서이다. 이는 다음고에서 살필 예정이다.

* 여행기 소재 1차 자료

『조광』, 『우라키』, 『동아일보』, 『중앙』 소재 해외기행문

| 참고문헌 |

- 김영숙, 「만주사변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소불가침조약 체결문제」, 『일본역사연구』 26집, 일본사학회, 2007.
- 공진항, 『이상향을 찾아서』, 탁암공진항 희수기념문집간행위원회, 1970.
- 박중훈, 「일제강점기 정인섭의 친일활동과 성격」, 『역사와경계』 89권, 부산경남사학회, 2013.
- 서정익, 「세계대공황기(1929-1936) 일본의 무역구조와 무역정책」, 『응용경제』 5집, 한국응용경제학회, 2003.
- 송규진, 「만주사변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대만주 무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05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1.
- 윤덕영, 「1920년대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 5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 이극로, 『고투40년』, 종합출판범우, 2008.
- 이순탁, 『최근세계일주기』,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 이태훈, 「1910-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 지형」, 『사학연구』 105집, 한국사학회, 2012.
- 임경석, 「세계대공황기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 『역사문제연구』 11집, 한국역사연구회, 1994.
- 정석해, 『서산 정석해, 그 인간과 사상』, 연세대출판부, 1989.
- 지수걸, 「1930년대 전반기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건성전략'-조선공업화와 엔블릭 재편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51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차혜영,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1920년대 해외기행문」, 『현대문학의연구』 24집, 2004.
- _____, 「'박물관 실험실' 은유와 네이션 주체의 구성방식-식민지 시대 여론형 서구 기행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 최종고, 『한독교섭사』, 흥성신서, 1983.
- 한승인,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일월서각, 1988.
- 그램 질로크, 노명우 역,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 도널드 서순, 오숙은 외 역, 『유럽문화사3, 4』, 뿌리와이파리, 2008.
- 리우어판, 장동천 외 역, 『상하이모던-새로운 중국 도시문화의 만개, 1930-1945』, 고려대출판부, 2007.
- 미리엄 실버버그, 강진석 외 역, 『에로틱 그로테스크 년센스-근대일본의 대중문화』 현실문화, 2014.
- 바네사 슈와르츠, 노명우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8.
-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역, 『발터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04.
-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 F L 알렌, 박진빈 역, 『원더풀 아메리카』(원제: 『Only Yesterday』), 앨피, 2006.
- 이매뉴얼 윌러스틴, 이광근 역,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 당대, 2005.
- 지오반니 아리기 외, 최홍주 역,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모티브북, 2005.
- 찰스 페인스틴·페터 테민·지아니 토니올로, 양동휴 외 역, 『대공황 전후의 세계경제』, 동서문화사, 2008.
-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진우 역, 『냉소적 이성비판』, 에코 리브르, 2005.
- 폴 콜리어 외, 강만수 역, 『제2차 세계대전-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플래닛미디어, 2008
- 피터 게이, 조한욱 역, 『바이마르 문화』, 탐구당, 1983.
- 피터 삼킨스, 강만수 외 역, 『제1차 세계대전』, 플래닛미디어, 2008.
- 和田博文 外, 『言語都市 ベルリン 1861-1945』, 藤原書店, 2006.
- _____, 『言語都市 パリ』(1862-1945)』, 藤原書店, 2006.
- _____, 『パリ・日本人の 心象地図(1867-1945)』, 藤原書店, 2006.

〈Abstract〉

The European Blocks economy since the Great
Depression and Change of the Western gaze,
Jeonginseop's the European travel experience in 1936

Cha, Hye-young
(univ. Hanyang)

This paper is a study of Western Europe's Travels of Jeonginseop in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paper studied the following: Severance and change appeared in the West in the mid-1930s, Korean representation, Dimensions that change is connected to the global level, Colonial Korea-Japan relationship which is connected to the branch, and the identity of the traveler's personal and it's 'contemporary western representations of common 知' point of being connected.

Jeonginseop's travels shows the uniqueness in time, identity, purpose of travel, national assurance, language skills. This period since the Great Depression, while European protectionism and turning to block cross-border logistics economy, currency, time was switched to a closed care in the human movement. He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alled 'World Championships linguists' with Yeon-hee professional status of teaching. He received the help of the Japanese Embassy Consulate abroad Japanese hall.

This is a break with the Nation imagination maintained until the 1920s. At a time in 1936, represents the Great Depress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block division into a huge competitive market fragmentation. This figure

individual with buyer (consumer) to the market=world. This sets the minimum protection(State=Non Nation) to protect the individual from the market. Western= goods is made by a double identity (consumers / citizens). But the West = goods can not be ultimately acquired (consumption = secured). Because of this fascination, fear, cynicism divisions are clashing appear on a variety of Western liberal unconscious.

Key words: Depression, block economic, trade protectionism, overseas Koreans network, overseas Japanese network, travel business service system, national inter-capitalist system, traveler's identity, individual thrown into the market, global simultaneity of capitalist urban culture, identity of consumers / citizens, West = goods, defensive cynicism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